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北-시리아, 경제무역·과학협조 의정서 체결

○ 북한과 시리아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경제공동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회의에서는 조선수리아(북한-시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 의정서의 이행정형(이행상태)이 총화되고(평가되고)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조선수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8차회의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밝힘.

○ 회의에는 북한 측에서 리용남 무역상이, 시리아 측에서 루바나 무샤웨흐 문화부 장관과 하이쌈 사아드 북한주재 임시대리대사가 각각 참석함. 통신은 그러나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연합뉴스, "北-시리아, 경제무역·과학협조 의정서 체결", 2012.11.5

☐ 獨단체, 北에 3년간 유기농법 전수

○ 독일의 민간단체인 유기농연구소(FiBL)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 친환경 농법을 전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연구소의 비아테 후버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한 50만 유로를 이용해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을 북한에 전수하고 있다”며 “북한의 농업 지도자 약 20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힘.

○ 연구소는 북한의 농업연구소와 함께 약 30ha 규모의 농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곡물을 재배하고 있고, 독일에서 파견한 연구원 5명이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 유기조사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후버 대변인은 “유기농법 전수와는 별개로 EU 원조협력청에 축산업 분야의 기술지원을 위한 대북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이 결정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獨단체, 北에 3년간 유기농법 전수", 2012.11.7

❑ FAO 관계자 "北 농업개혁 시험 중"

○ 지난 9월 북한에서 올해 작황을 조사한 FAO의 키산 군잘 박사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에서 농업 개혁을 시험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북한 관계자들은) 성과가 좋으면 개혁 추진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RFA가 14일 보도함.

○ 그는 방북 기간 북한 고위 당국자에게 농업 개혁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복수의 농업 관계자들은 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설명함.

○ 군잘 박사는 또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FAO가 최근 북한의 올해 곡물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올해도 넓은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수확량이 감소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면서 “10만 ha에서 약 20%정도 수확량이 줄었지만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다”고 말함.

연합뉴스, "FAO 관계자 "北 농업개혁 시험 중"", 2012.11.14

❑ WFP, 北서 식품공장 14개 운영중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총 14개의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지난 9월 평양에서 옥수수와 밀가루를 이용해 영양강화 비스킷을 만드는 식품가공공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며 “북한에 있는 14개 공장에서 올해 3분기 생산한 식품의 양은 1만 200톤으로 이전보다 10% 늘었다”고 밝힘.

○ 영양강화 비스킷은 옥수수와 밀가루를 주재료로 가로, 세로 5㎝의 정사각형 모양의 과자로 ‘WFP’라는 글자가 새겨져 학교와 탁아소 등 아동시설에 공급되며 어린이 1명당 하루 2개씩을 지원함.

○ WFP는 평양에 있는 4개 공장을 비롯해 신의주, 해주, 원산, 함흥, 혜산, 청진 등 7개 도시에서 14개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식품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분배하고 있음.

○ 스카우 대변인은 모니터링(분배 감시) 문제와 관련, “지난달 북한의 48개 지역에서 276회의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며 “북한 당국과 유엔의 협약에 따라 하루 평균 10회의 식량분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WFP, 北서 식품공장 14개 운영중", 2012.11.15

☐ 北 인구 2,460만 명 … "1년 사이에 10만 명 증가"

○ 북한의 인구가 지난 1년 사이에 10만 명 증가해 세계 평균 인구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인구기금(UNFPA)은 14일 발표한 '2012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인구가 2,4백0만 명으로 2011년 2,450만명 보다 10만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힘.

○ 이러한 인구 증가율은 0.4%로, 세계 평균 1.1%,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5년까지 북한의 인구가 연 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보고서는 2015년까지 북한 여성 1명이 2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할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북한의 인구 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 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분석함.

노컷뉴스, "北 인구 2460만 명 … "1년 사이에 10만 명 증가"", 2012.11.15

☐ 中기업, 北나선특구 투자 가속화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나선 특구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20일 지린(吉林)성 경제합작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나선 특구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8~10개사에 이른다고 전함.

○ 신문은 지난 8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북·중이 6개 기업의 투자사업과 4개 정부합작사업에 정식 합의했으며 중국교통그룹, 중국철로건설그룹, 자오상(招商)그룹, 야타이(亞泰)그룹 등 대형 기업들이 곧 나선 특구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앞서 훈춘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북한 투자 연구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분쟁 접수·처리 기구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음. 중국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북·중이 공동 설립한 나선 특구 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음.

○ 신문은 중국 측이 지난 9월 나선 특구 관리위원회의 북측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린성 창춘(長春)시의 법률사무소를 견학하도록 하고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中기업, 北나선특구 투자 가속화", 2012.11.20

☐ 北, 평양시 하천정비·공원 리모델링 완료

○ 북한당국이 지난달 초부터 추진해온 평양시내 하천정비 사업과 공원리모델링 사업이 대부분 완료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평양시내 합장강·보통강 정리사업, 공원리모델링 사업이 40여 일 만에 모두 마무리됨.

○ 합장강 정리사업에서는 28만㎥의 진흙을 파내고 1만 8천㎡의 옹벽을 보수함. 보통강 정리사업에서는 80만㎥의 진흙을 파내고 3만 2천㎡의 옹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지 9만㎡에 대한 정리·녹화사업도 진행함.

○ 또 상흥아동공원, 대동문공원, 보통강공원, 청류공원 등 평양시내 18개 공원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운동기구를 설치함.

연합뉴스, "北, 평양시 하천정비·공원 리모델링 완료", 2012.11.20

☐ 中제품 北암시장 석권…위안화 사용 확산

○ 중국산 제품이 북한 내 암시장을 장악했고 암시장에서는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23일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북한경제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에 실패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코트라는 "중국 제품이 암시장을 석권했고 북한 원화보다 위안화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며 "지난 1월 문을 연 평양시내 최대 규모의 광복지구상업센터에서 파는 식료품, 의류, 전기제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전함.

○ 평양시내 일반 슈퍼마켓에서 중국산 포테이토칩은 3천원, 컵라면은 6,500원인데 반해 공무원 월급은 3천~1만원 수준에 불과함. 중국 세관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1~8월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6억 5,100만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함.

연합뉴스, "中제품 北암시장 석권…위안화 사용 확산", 2012.11.23

☐ 北 영아·산모 사망률 1990년대 초 보다 높아져

○ 북한의 영아사망률(출생 후 1년 이내 사망)과 임신·분만 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하는 모성사망률이 1990년대 초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북한어린이를 지원하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각종 국제기구 자료 등을 분석해 26일 내놓은 '2012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3

년 1천명 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남한은 9.9명에서 3.5명으로 낮아짐. 모성사망률(10만명 분망 기준) 역시 1993년 54명에서 2008년 77명으로 높아짐.

○ 지원본부는 “가정에서 출산할 때 사망 위험이 컸다”면서 “또 (산모들의) 병원 이용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피임기구 등이 부족했다”고 전함.

○ 반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1960년 37명에서 1990년 14명, 2000년 48.8명, 2008년 26.7명 등의 추세를 보임. 어린이 영양장애 비율 역시 급성영양장애의 경우 1998년 15.6%에서 2009년 5.2%로, 만성영양장애와 저체중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62.3%에서 32.4%, 60.6%에서 18.8%로 하락함.

연합뉴스, "北 영아·산모 사망률 1990년대 초 보다 높아져", 2012.11.26

□ 北·中 황금평 단계적 개발…1.6㎢ 우선 추진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관리를 추진 중인 북한 황금평 경제특구 가운데 일부 부지를 우선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중은 전체 면적이 14.4㎢에 이르는 황금평 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이 중 1.6㎢ 규모의 ‘초기 시작구역’을 먼저 건설할 방침임. 이곳에는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가스, 난방 등 기반시설 이외에 황금평 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세관, 교역센터, 표준 공장건물, 보세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관리위 청사는 지난 9월 15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했음.

○ 관리위 책임자인 주임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공산당위원회 루빙위(盧秉宇) 상무위원이 맡았으며 4명의 부주임은 북·중이 각각 2명씩 파견하고 관리위 산하에는 건설, 투자유치, 재정, 세무 등을 담당하는 6개 부서가 설치됨.

○ 중국경제주간은 현재까지 드러난 황금평 특구의 합작모델과 관련 법률, 정책 등이 두만강 유역 경제특구인 북한 나선 특구와 거의 같으며 북·중 간 경제합작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지만 합작 기간, 관리위의 직능 규정과 인원 구성, 교역·결산 화폐단위 등 정리해야 할 세부 과제가 많다고 전함.

연합뉴스, "北·中 황금평 단계적 개발…1.6㎢ 우선 추진", 2012.11.28

□ 北, 자연재해 위험지수 세계 7위

○ 북한이 자연재해 때문에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독일 비정부 환경단체인 ‘저먼워치’(German Watch)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저먼워치는 1992~2011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그 피해를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3년 국제 기후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후위험지수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악화해 전체 7위로 평가됐다고 밝힘.

○ 이 단체의 라리사 뉴바우어 대변인은 RFA 측에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37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북한은 해마다 평균 2건의 자연재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봤다고 전함.

○ 보고서는 또 북한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본다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재난대처 능력이 취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고 밝힘.

연합뉴스, "北, 자연재해 위험지수 세계 7위", 2012.11.29

2. 식량 사정

□ 양강도 감자 배급량 1개월 분 줄어 농민 울상

○ 북한 양강도의 대표 농작물인 감자가 여름 풍수해와 가을 냉해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양강도 대홍단군 등에서는 9월 이후 생산한 감자가 한 해 생산량의 70%를 차지함.

○ 양강도 소식통은 10월 말에 이뤄진 감자 배급량을 설명하면서 "매년 가을 감자배급은 3개월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작년에는 3개월분으로 200kg을 받았는데 올해는 2개월 분 120kg에 그쳤다"고 말함. 이 때문에 초겨울 식량 걱정을 하는 가정들이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함. 양강도는 고원지대 특성 때문에 옥수수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함.

○ 이어 "올해 감자알이 들 무렵인 7월 말과 8월 초에 비가 많이 내려 감자밭에 물이 많이 고였다"면서 "감자알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데다 가을에 냉해까지 받아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함. 그는 "겨울 식량 사정도 어렵지만 내년 초가 더 걱정"이라고 말함.

데일리NK, "양강도 감자 배급량 1개월 분 줄어 농민 울상", 2012.11.2

3. 가격 추이

□ '고공행진' 北쌀값, 상승세 주춤

○ 반년 넘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지난 9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북한의 쌀값이 지난달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16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

르면 지난달 22~29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100~800원(북한원화) 떨어진 6,000원, 6,100원, 6,200원이었음.

○ 환율의 경우 평양, 혜산이 각각 달러당 70원, 40원씩 떨어진 6,300원, 6,460원이었고 신의주는 250원 오른 6,460원을 기록함.

○ 데일리NK는 “북한 전역의 쌀값이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것은 현재 콩, 옥수 수확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고공행진' 北쌀값, 상승세 주춤", 2012.11.16

❑ 北, 외화단속 강화하자 환율·물가 급등

○ 북한 당국이 외화검열을 강화하면서 장마당에서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양강도 소식통은 22일 “북한당국의 외화단속 강화로 양강도 혜산장마당의 환율은 외화검열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10일에는 중국인민폐 1위안 대 북한 돈 1,020원에 거래됐으나, 11월 20일에는 1,260원까지 올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또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식량가격도 올라 가을걷이가 끝난 11월 초에 중국산 입쌀 1kg에 5,000원 중반으로 내렸지만 11월 20일에는 6,000원까지 올랐다”고 말함.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외화검열 그루빠(그룹)가 조직돼 국가무역기관 외에는 일체 외화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각 도마다 외화벌이를 위해 조직된 ‘수출원천동원사업소’들도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함.

노컷뉴스, "北, 외화단속 강화하자 환율·물가 급등", 2012.11.23